

## 글로벌 기후기술협력 동향 보고

2018.03.06



# 1 기후기술 동향

## 1. UNFCCC 기술메커니즘 관련 기구

구분		내용
CTCN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TCN, 튀니지아 에너지효율제고 전략 지원</li> <li>- CTCN은 튀니지아의 국가 에너지효율성제고를 위해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교재 개발을 지원하였고, 그 사례를 보고서로 발간 <a href="#">(3/2, CTCN)</a></li> </ul>
GCF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CF, 기후변화대응 23개 신규사업 지원책 마련</li> <li>- 제19차 GCF 이사회에서 신임 공동의장의 주재하에 GCF 자금 지원 규모와 금년도 활동 계획 논의</li> <li>- 23개 신규사업(총 사업규모 34.1억 달러)에 대해 10.9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여부가 논의되며, 이는 역대 이사회중 최대 규모의 지원금</li> <li>- 23개 신규사업중에는 KOICA가 지원하는 WB의 베트남 기업 에너지 효율화 증대사업도 포함(GCF 8630만 달러, WB 1억 170만 달러, KOICA 190만 달러 지원) <a href="#">(2/28, 환경일보)</a></li> </ul>

## 2. 기타 국제기구 및 기관

구분		내용
국내	GG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GGI, 미얀마 녹색성장잠재력에 대한 국가보고서 발간</li> <li>- 미얀마 녹색성장 전략 수립에 앞선 선행된 녹색성장잠재력평가 (Green Growth Potential Assessment)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발간, 미얀마의 녹색성장을 위해 잠재력이 큰 섹터 별로 제언을 도출 <a href="#">(GGGI, 2/28)</a></li> </ul>

### 3. 기후기술 정책

구분		내용
국내	정책일반	<p>○ 탄소산업 총괄기관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 소재법 개정안’ 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이 2017년 8월 25일 대표 발의한 ‘탄소 소재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산업위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빠르면 2월내 국회 본 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짐</li> <li>-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탄소산업 정책을 개발하고 도립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해 체계적인 탄소산업 육성 기대</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2/21, 투데이에너지)</a></p>
		<p>○ 배출권 거래제 업종별 할당 폐지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배출권 할당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하면서 업종별 할당 절차 폐지를 추진</li> <li>- 업종으로 묶어서 1차적으로 배출권을 나누다보니 업종별 땅 따먹기가 되고, 업종내에서도 업체별 사정에 따라 다른 배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겨 중간 과정을 없애는 것이 낫다고 판단</li> <li>- 다만, 산업계는 업종별 할당 절차 폐지시 제도 운영자인 정부와 기업이 직접 할당량을 협상해야하는 상황에는 부담 표시</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2/27, 전자신문)</a></p>
		<p>○ 금산군,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ICT 기반 스마트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일 금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고온, 이상 한파, 가뭄 등 이상기후에 적응하고 품질향상과 노동력 절감이 가능한 ICT 융복합 스마트 농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li> <li>-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관행적 농업과 작목선택의 협소성을 타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2/21, 충청투데이)</a></p>
국외	일본	<p>○ 일본, 녹색세제(green tax) 개혁안 논의 행사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월 15일 일본 IGES는 일본 환경성 지원의 환경 경제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탈탄소 사회를 위한 녹색 세제 개혁안’을 발표하는 공개 심포지엄 개최 예정</li> <li>- 본 행사에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6년 대비 80%까</li> </ul>

		<p>지 감축한다는 일본 정부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탄소 세제 개혁안을 제안하고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탈탄소 사회를 위한 정책 논의를 실시할 예정</p> <p style="text-align: right;"><a href="#">(2/20, IGES)</a></p>
		<p>○ <b>일본 환경성, NDC 달성에 JCM이 미치는 기여도에 대한 세션 보고서 발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환경성은 지난 COP23의 부대행사로 열렸던 ‘NDC 달성에 미치는 JCM의 기여도’세션의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서를 발간</li> <li>- 이는 지난 베트남, 몽골과의 JCM 사업 수행의 결과를 반추해봄으로써, JCM 하 성공사례들이 다른 파트너국가들이 적절한 기후기술 수요파악에 도움을 주며, JCM 사업 이후 동 사업의 확산에 대한 파트너국의 의지가 컸다고 밝힘</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3/6, Carbon Markets)</a></p>
	독일	<p>○ <b>독일 대규모 태양광발전 입찰에서 사상 최초로 €0.04/kWh 이하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내 2018년 첫번째 입찰에서 750k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발전 입찰에서 최초로 €0.04/kWh를 돌파</li> <li>- 입찰가격은 최저 €0.0386/kWh, 최고 €0.0459/kWh였으며, 최종 평균 입찰가격은€0.0433/kWh로 나타남</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2/20, PV magazine)</a></p> <p>○ <b>독일, 2019년까지 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하기로 합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의 기독교민주당(CDU)과 사회민주당(SPD)는 적어도 2019년까지는 무연탄 및 갈탄 생산을 중단하기로 합의</li> <li>- 본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3월 첫째주 사회민주당의 투표로 결정될 예정</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2/7, Climate home news)</a></p>
EU	<p>○ <b>EU 의회, 2020년 이후 탄소시장 개혁안 최종 승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월 27일 EU 28개 회원국 정부 관계자들은 2021-2030년 EU 배출권 거래제 운영과 관련하여 연간 탄소배출권 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발전 및 산업 설비의 배출 총량 허용치를 줄이는 방안에 관해서 합의</li> <li>- EU 정부는 산업계 배출 허용총량 역시 매년 2.2%씩 줄여나가는데 합의</li> <li>-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총 40% 감축 목표에 기여할 예정</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2/27, Reuters)</a></p>	

	<p>일반</p>	<p>○ 캘리포니아-퀘벡-온타리오간 첫 번째 배출권 경매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캐나다 퀘벡주와 온타리오주간의 첫 번째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가 실시</li> <li>- 앞서 2014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캐나다 퀘벡주 탄소배출권 거래제간에 연계 실시하여 왔으며, 이는 현재 EU 배출권 거래 시장에 이어 세계 2번째 규모의 배출권 거래 시장으로 부상</li> <li>- 이번 캘리포니아-퀘벡-온타리오간 배출권 거래제 통합은 타 지역 배출권 거래제와의 통합을 통해 배출권 거래시장이 국경을 넘어 더욱 크게 확대 통합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데 의미가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2/20, ICAP)</a></p> <p>○ 싱가포르, 2019년부터 탄소세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월19일 싱가포르 정부는 2018년 예산안 발표를 통해서, 2019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1톤당 \$5의 탄소세 부과 계획 발표*</li> <li>-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부가세 환급금 뿐 아니라 추가 재정지원을 계획하고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 싱가포르의 동남아시아 국가중 최초로 발전소, 정제시설 등 대량 온실가스 배출원을 대상으로 탄소세를 도입</a></p> <p style="text-align: right;"><a href="#">(1/29, 서울경제)</a></p> <p>○ 기후변화가 사막화에 미치는 영향, 정량적 예측 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 지표면의 사막화 진행과 변화를 정량적으로 예측·분석하는 기술을 최근 개발</li> <li>- 중남미, 남부 유럽, 남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남부 등에서 건조화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부 유럽 지역은 2040년부터 이미 사막화 현상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분석</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1/31, 월간암)</a></p>
	<p>미국</p>	<p>○ 미국 정부, 화석연료에 탄소세 부과 계획 통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월 22일 미 상원 세입위원회는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1톤당 12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안을 포함한 상원 법안 6203을 의결</li> <li>- 본 탄소세는 2019년부터 발효되어 2021년에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휘발유 및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판매나 사용하는 분야를 모두 대상으로 부과 예정</li> <li>- 도입 초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 1톤당 12달러로 시작하나 매년 약 1.80달러/톤씩 세율이 증가하여, 2030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 1톤당 30달러에 달할 예정</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2/26, csdailynews)</a></p>

2

주요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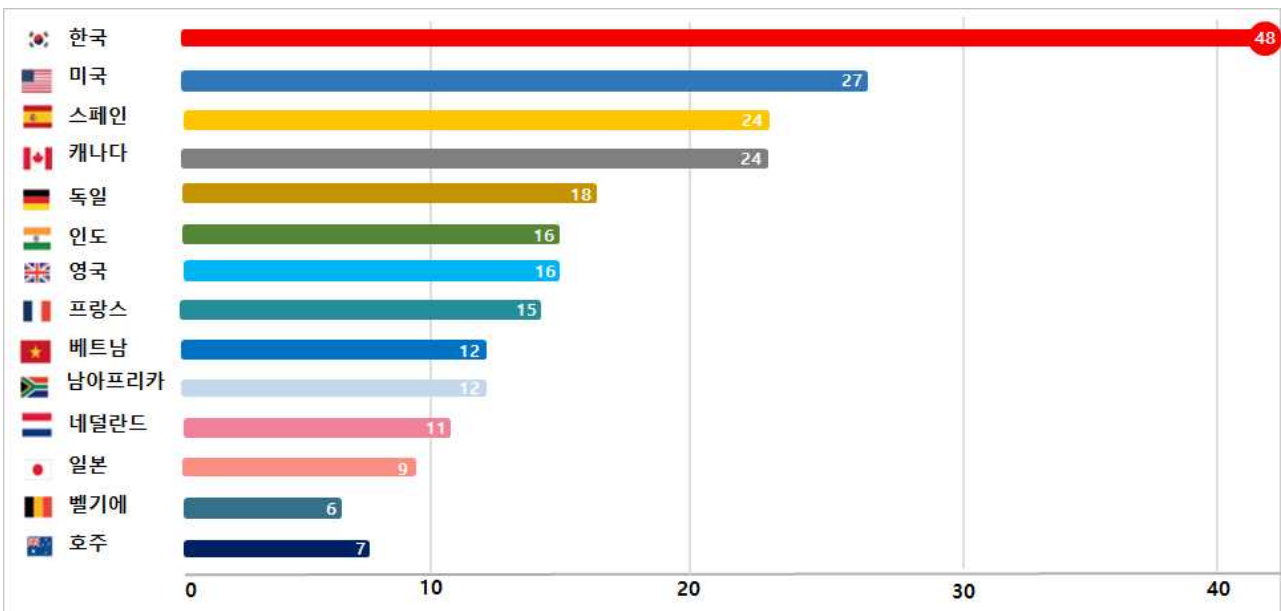
□ 파리협정 비준 현황 (2018.3.6. 현재)

- 197개 당사국 중 175개국 비준

UNFCCC 홈페이지 ([http://unfccc.int/paris\\_agreement/items/9444.php](http://unfccc.int/paris_agreement/items/9444.php))

□ CTCN 가입기관 현황 (2018.3.6.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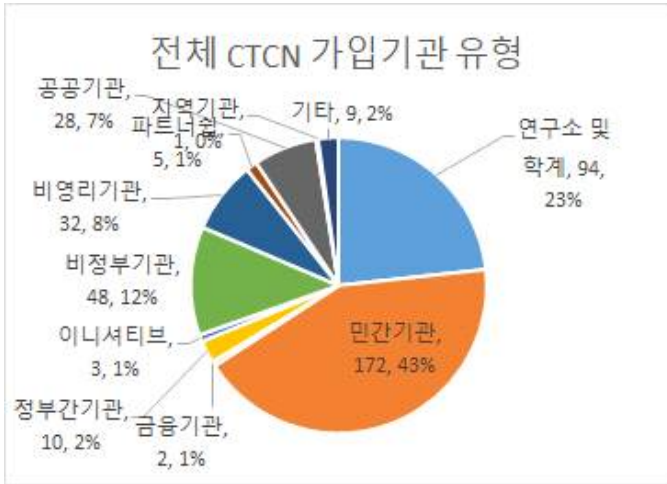
- 총 404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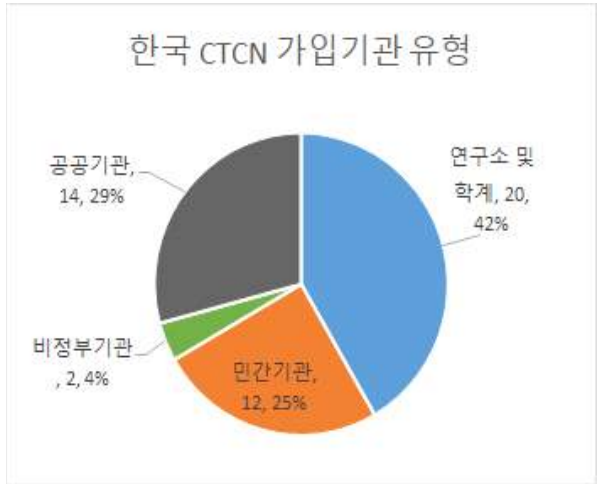
가입기관의 업무유형 현황



□ CTCN 가입기관 유형 (2018.3.6 현재)



<CTCN 전체 404개 가입기관 유형>



<한국 48개 가입기관 유형>

- 전체 404개 CTCN 가입기관의 조직유형 중, 민간부문이 전체 172건으로 42%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연구기관이 94건(23%), 비정부·비영리부문 NGO와 NPO가 각각 48건(12%), 32건(8%) 순으로 비중을 차지
- 반면, 한국은 총 가입기관 48건 중, 연구부문의 기관 가입이 20건(42%)으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다음으로 공공부문 조직이 14건(29%)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 CTCN 가입기관 (2018.3.6. 현재)

연번	기관명	회원번호
1	한국에너지공단(KEA)	N0046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N0049
3	녹색기술센터(GTC)	N0056
4	한국환경공단(KECO)	N0086
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N0089
6	한국화학연구원(KRICT)	N0098
7	한국전기연구원(KERI)	N0113
8	한국기계연구원(KIMM)	N0123
9	재료연구소(KIMS)	N0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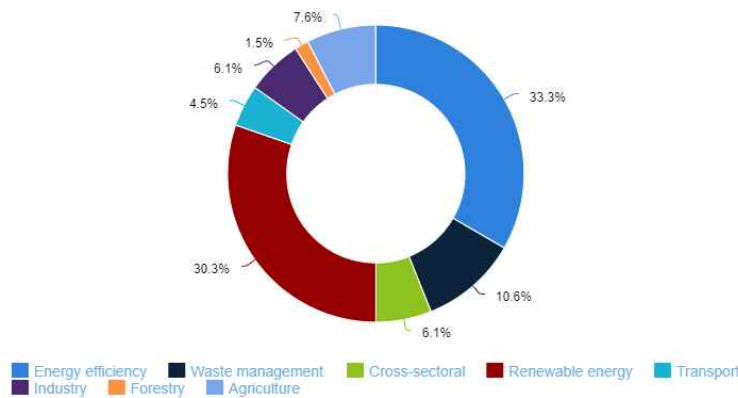
10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N0176
11	생명공학연구원(KRIBB)	N0179
12	한국표준연구원(KRISS)	N0181
13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N0185
14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N0188
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N0189
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N0190
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N0192
18	철도기술연구원(KRRI)	N0195
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N0194
20	선진 E&A	N0196
21	한국천문연구원(KASI)	N0200
22	광주과학기술원(GIST)	N0201
23	기술보증기금(KIBO)	N0203
2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N0205
25	포항공대(POSTECH)	N0212
26	삼일회계법인	N0224
27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N0225
28	한국전력공사 (KEPCO)	N0232
29	벽산엔지니어링	N0235
30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N0237
31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N0238
32	한국수자원공사 (K Water)	N0240
33	ECO &PARTNERS	N0252
34	벽산파워	N0261
35	푸른아시아	N0264
36	한국임업진흥원(KOFPI)	N0277
37	FORCEBEL	N0280
38	(재)기후변화센터	N0283
39	포스코에너지	N0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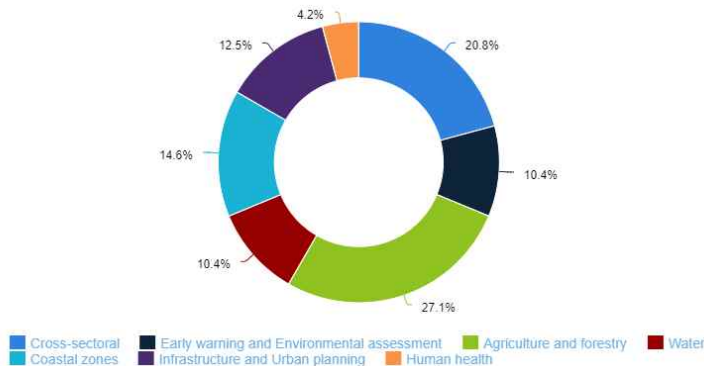
40	KPMG Korea	N0285
41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KPC)	N0307
42	LS 산전(LSIS)	N0320
43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KCRC)	N0323
44	(주)에스엘글로벌우(SLG Co.,Ltd.)	N0356
45	(주)해강기술	N0382
46	APEC 기후센터	N0383
47	평화엔지니어링	N0407
48	(재)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N0412

□ CTCN Technical Assistance 사업 현황 ('18.3.6. 현재)

- 제출된 TA : 198개
- Active TA : 110개 (감축관련 TA-52.8%, 적응관련 TA-32.8%)



〈제출된 TA 중 감축 관련 주제 분포 현황〉



〈제출된 TA 중 적응 관련 주제 분포 현황〉